3 난임부부 간절한 소망 부산시 응답!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


3

전국 최초로 추진한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역시 부산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시민행복 뉴스 3위로 선정됐다. 지난해 3월, 온라인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접 답변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난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룬 쾌거다.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 등이며 지난해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히 부산시가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던 난소 나이 검사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도 주목할 성과다.

4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시행



4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로, 보호구역 등 동네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 방향이 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시속 10㎞를 줄이면 사망사고가 30% 감소한다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11월 11일 선포식을 갖고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했다. 계도기간 운영 및 신호 연동 강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자동차 전용도로 16곳과 물류 도로 47곳은 제외했다. 부산시는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사람 중심, 안전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더 빨라지고 더 행복해진다! 도시철도 1·2호선 급행열차 건설계획 발표


5

사진제공·국제신문

도시철도가 '급행열차 도입'으로 더욱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으로 탄생한다. 도시철도 급행열차는 기존 정차역 중 일부만 정차해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 현재 78분이 소요되는 1호선 노포~다대포 구간은 급행열차 도입으로 44분으로, 2호선 장산~양산 구간은 85분에서 54분으로 단축된다. 이처럼 도시철도 1·2호선 속도가 빨라지면 연계되는 다른 대중교통 속도도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도시 순환 활성화로 균형발전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등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급행열차 도입을 발표하고 타당성 분석과 정차역 선정,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6 월드컵·올림픽 세계 3대 이벤트! 2030부산월드엑스포 본격 유치 돌입



6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민선 7기 부산시가 350만 시민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평가받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최종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12월에는 범정부 유치기획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2030월드엑스포 최종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될 경우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본격화, 북항 재개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탄력 등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취업유발효과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7

7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구포가축시장 폐쇄

'전국 3대 개시장'으로 불리며 한때 동물학대의 온상지였던 '구포가축시장 폐쇄'가 7위에 뽑혔다. 지난해 7월 1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북구청장, 구포시장 가축지회 상인회 등은 '구포가축시장 폐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가축시장 상인들은 이날부터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리 기간을 거쳐 초복 하루 전날인 7월 11일 완전히 폐업했다. 폐업 대상 업소 19곳에서 구조된 개 85마리는 경북 경주를 비롯해 전국의 동물보호시설로 이송됐다. 6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민선 7기 부산시가 해결한 것이다. 특히 강제 폐쇄가 아닌 합의에 따른 전국 첫 폐업 사례로 도심 환경 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8

8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미래를 향한 첫 삽과 함께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부산 강서구 세 강이 만나는 세물머리 주변 2.8㎢,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헬스 케어, 스마트 워터, 로봇 등 10대 전략과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탄생될 예정이다. 2021년 말 입주를 목표로 시민들이 스마트기술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실험적 주거공간 '스마트 빌리지' 56세대도 조성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진행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정상 등 1천여 명이 참석, 앞으로 부산이 보유하게 될 스마트시티 산업과 기술력에 주목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9

사진제공·국제신문

9 40년만에 기념일 지정!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유신 체제 몰락의 불씨를 당긴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지난해 10월 16일, 뜻깊은 첫 기념식을 개최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첫 항쟁이 일어난 지 정확히 40년 만이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일어난 '시민항쟁'이다.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를 끝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4·19, 5·18, 6·10 항쟁'과 함께 '4대 민주화 운동'으로 불린다. 부산시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추진위원회 출범,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10

10 국내 최대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시설! 코렌스 투자유치 성공

부산을 빛낸 시민행복 10대 뉴스 마지막은 '코렌스 투자유치 성공'이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 엔진 부품 중견 제조사인 코렌스는 연매출 5천억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코렌스와 신증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최대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시설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코렌스는 2022년까지 강서구에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공장을 건설한다. 특히 코렌스와 함께 협력업체 20여 개가 동반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국내 중견·중소 전기차 부품업체 상생협력형 대규모 클러스터가 탄생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전체 투자금액은 7천600억 원, 4천300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내 총생산 규모도 연간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희_kicihappy10@korea.kr